



신한금융투자

해외주식 고객 대상 이벤트

신한금융투자는 업계 최초로 선보인 해외주식 소수점 구매 및 대여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실시한다.

오는 6월 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의 경품은 국내에서 첫 선을 보인 '해외주식 교환권'이 제공된다. '해외주식 교환권'은 '신한아이 알파', '신한플러스', '신한 SOL' 어플의 해외주식 소수점 구매 서비스인 '글로벌 투자 여행'에서 교환권 금액만큼 해외주식을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아마존, 인텔, 넷플릭스 등 미국 시장의 주요 64개 종목의 '해외주식 교환권'을 이용할 수 있다.

/김문호 기자

'승리기획사' YG의 추락, 국민연금에 불똥

지분 5% 이상 보유… 100억 손실
이틀간 YG엔터 시총 1337억 증발
주가 4만7500원→3만5900원↓



/국민연금

빅뱅 멤버 승리가 운영하던 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을 시작으로 성 접대 의혹, 마약, 불법 동영상 유포 등으로까지 사태가 확대되면서 와이저엔터테인먼트(YG 엔터테인먼트) 주식이 폭락했다. 이 영향으로 국민연금공단은 100억여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국민연금의 YG엔터테인먼트 지분율이 5% 이상인 만큼 스튜어드십코드 행사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된다.

13일 주식시장에서 YG엔터는 전일 대비 5.51% 상승한 3만7750원에장을 마감했다. 3거래일 만의 상승이다. 개인투자자의 저가매수세가 몰렸다는 분석이다.

다만 승리가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몰카를 공유했다는 새로운 의혹까지 나오면서 상황은 좋지 않

다. 지난 8일 4만3250원에 마감했던 YG 엔터테인먼트 주가는 지난 11일 14.1% 급락한 3만7150원에장을 마쳤다. 다음 날인 12일에도 3.36% 하락한 3만59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틀간 YG엔터테인먼트의 시가총액은 1337억원이 증발했다.

YG엔터테인먼트의 주식은 소속 가수 승리의 성 접대 의혹이 보도된 지난달 26일 이후 연일 하향세다. 이 기간 주가는 4만7500원에서 3만5900원까지 떨어지면서 24.4%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YG엔터테인먼트의 시가총액은 8638

억원에서 6529억원으로 2000억원이 넘게 증발했다. 이후 경찰이 승리를 '성매매 알선' 혐의로 피의자로 전환하자 4만 원 밑으로 떨어졌다.

이 영향으로 국민연금 수익률은 타격을 입었다. YG엔터테인먼트는 지분 21.17%를 양현석 대표가 보유하고 있지 만 네이버(9.13%), 국민연금(6.52%) 등도 주요 주주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8월 7일 YG엔터테인먼트의 주식 98만9086주를 신규로 매수했다. 당시 주식 보유지분 비율은 5.06%였다. 이후 12월 20일 연금공단은 20여만주 추가 매수를 통해 총 118만 5323주를 보유하며 6.06% 지분을 확보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YG엔터테인먼트의 지분 6.52% 보유하고 있다.

경찰이 버닝썬 사태와 성접대 의혹에 대해 전방위 수사에 나서면서 국민연금의 손실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최근 한진칼을 상대로 처음으로 스튜어드십코드를 행사한 가운데 YG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주주

권 행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연금의 YG엔터테인먼트의 지분율이 5% 이상인 만큼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국민연금이나 자산 운용사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큰 집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Steward)처럼 고객과 수탁자가 맡긴 돈을 자기 돈처럼 여기고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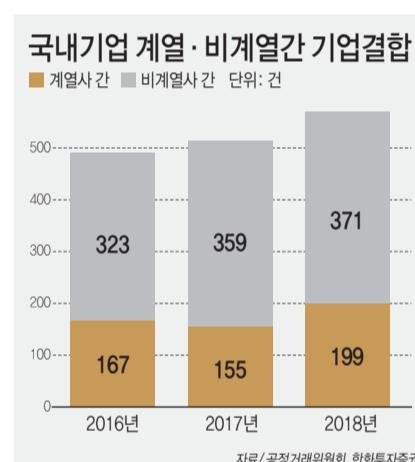
특히 오는 22일에는 YG엔터테인먼트의 정기주주총회가 열린다. 이번 주총에는 승리가 운영하는 홍대 클럽의 실소유 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양현석 대표의 동생인 양민석 대표이사의 사내이사 재선임안이 상정돼 있는 만큼 현재 사태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센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오는 주총에서 스튜어드십코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이지만 주주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기업 회사채 발행 시즌?… 사업재편·M&A 가속페달

LG화학, 회사채 1조원 발행 등
삼성·현대차·SK 등 10대 그룹
회사채 차환수요 20조원 가량



LG화학은 최근 1조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회사는 확보되는 자금을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능력 확대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정호영 LG화학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이번 회사채의 성공적인 발행은 투자자들이 LG화학의 안정적인 재무 현황과 미래 성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사업 구조 고도화를 적극 추진해 기업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대제철도 7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현대제철은 현대차그룹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수소전기차' 연료가 되는 '수소' 생산을 맡고 있다. 지난해 현대제철은 충남 당진공장의 수소 생산량을 2배로 확대하며 연간 6500t의 수소 생산설비를 갖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기업 사업재편과 신성장동력 목적의 인수합병(M&A)이 증가하고 있

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기업 기업결합 건수는 570건(43조 6000억원)으로 국내기업 간 기업결합 건수는 554건으로 전년 대비 49건이 늘었다.

기업들은 실태확보를 위해 회사채시장을 찾고 있다.

13일 한화투자증권과 크레딧시장에 따르면 삼성·현대차·SK·LG·한화·롯데·한진·GS·신세계·포스코 등 주요 10 그룹의 회사채 차환수요는 20조원 가량이다.

자금 조달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

다. 대기업들이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해 잇달아 비핵심 사업 정리와 계열사 재편 작업에 나서고 있는 데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인수합병(M&A)에 적극적이기 때문이다.

LG그룹은 최근 몇 년 사이 M&A 시장의 큰손으로 부상했다. 특히 자동차 부품 부문에 공을 들이고 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 취임 이후 4세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선 굵은 M&A 행보를 보이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식품바이오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CJENM은 CJ헬로를 팔고 콘텐츠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통해 뉴턴을 키웠다.

SK그룹은 ▲SK E&S의 파주에너지 지분, SK해운, SK증권 매각 ▲동남아 냉동물류 등 신성장동력 투자 ▲ESR(중국 물류회사), 마산그룹(베트남 유통기업) 투자 등을 추진했다.

LS그룹은 LS엠트론의 오토모티브·동박사업부를 KKR에 매각하는 한편 전력 인프라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스마트 에너지 사업에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 김민정 연구원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운영자금 확보 목적의 회사채 발행이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사업재편과 신성장동력 확보 목적으로 대규모 장기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질 것이다. 이들 입장에서 회사채 발행이 유리해(발행금리 하락)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들어 2월까지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15조4211억 원(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 기준)에 달한다. 지난해 14조9724억 원 보다 3% 가량 늘었다.

CJ제일제당이 7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한 것을 비롯해 LG유플러스(5000억원), 미래에셋대우(5000억원), GS칼텍스(5000억원), LG전자(5000억원), SK에너지(5000억원), SK텔레콤(4000억원) 등이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회사채 시장을 찾았다. 운영자금은 설비 투자와 차환수요 이외 다양한 목적의 자금수요를 의미한다.

발행비용도 뚝 떨어졌다. 크레딧시장에 따르면 회사채 발행금리는 지난해 보다 70bp(1bp=0.01%포인트) 하락했다.

/김문호 기자 kmh@

현대건설 2019 현대건설 기술공모전

내달 말까지 중소기업 대상 모집

현대건설이 내달 30일까지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9 현대건설 기술공모전' 응모작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응모분야는 ▲원가 절감형 기술 ▲건설 특화/차별화 기술 ▲건설 적용 가능한 정보통신기술(ICT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등 건설현장에 직접 적용 가능한 기술이다.

응모자격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해당되는 국내 중소기업이다. 즉시 적용이 가능한 기술이면 '사업화 계획서'를 제출하고, 추가개발이 필요한 기술의 경우 '기술개발 계획서'를 내야 한다.

응모는 현대건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응모작은 5월 중 서류심사, 6월 중 발표심사를 거쳐 7월에 수상작이 발표된다. 수상자에게는 오는 11월 초 열리는 현대건설 기술컨퍼런스 행사에서 수상작 발표와 전시 기회를 부여한다.

수상된 기술이 즉시 적용 가능할 경우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현장에 시범 적용해 실효성을 검증한다. 현장 적용 후 최종 성과를 평가해 사업화 기회도 제공한다.

추가개발이 필요할 경우 기술개발에 필요한 금액과 실험실 및 장비를 지원한다. 또한 기술 멘토링을 통해 동반성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력 향상을 도모한다.

/채신화 기자 csh9101@

IBK기업은행 50개 업무처리 '디지털 뱅킹존'



IBK기업은행 선릉역지점 열린 '디지털 뱅킹존' 시연회에서 김도진 기업은행장이 디지털 금융기기 사용하고 있다.

/IBK기업은행

지점 등 5개 영업점에서 디지털 뱅킹존을 시범 운영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NH투자증권

ELS 4종 400억 규모 모집

NH투자증권은 오는 15일까지 주가연계파생결합증권(ELS) 4종목을 400억원 규모로 모집한다. ELS 17722호는 유로스톡스50(EuroStoxx50)지수, 홍콩항셍 중국기업지수(HSCEI), 스텠다드앤팝스500지수(S&P500)를 기초자산으로 연 5.40% 지급 3년만기 상품으로 매 6개 월마다 조기상환기회가 부여된다. 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기준가 대비 85%(6·12·18·24개월), 80%(30개월), 75%(36개월) 이상인 경우 연 5.40%(세전) 수익을 제공한다. 원금 손실조건이 45%로 상대적으로 손실조건이 낮은 구조이다.

/김문호 기자

유안타증권

신임대표에 귀명정 내정



유안타증권은 12일 신임 대표에 귀명정(郭明正·Kuo Ming-Cheng·사진) 유안타 파이낸셜홀딩스 기업금융 총괄임원을 내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유안타증권은 지로 본사에서 대표이사 후보 추천 등을 위한 임원후보자 추천위원회와 사내이사 선임 등 정기주주총회 부의의안 결정을 위한 이사회를 열어 귀명정 유안타 파이낸셜홀딩스 기업금융 총괄임원을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하고 사내이사 선임에 대한 주주총회 상정을 결의했다.

귀명정 대표 내정자는 오는 29일 정기주주총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손임지 기자